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아침에는 비오다가

제목 : 5/10에간 희망TV SBS 희망워크(4Km) 낮에는 시원날 ~

학교와 영어를 마친뒤 지면이집에 갔다 평소 같았으면 리슬이랑

태권도장을 가는데 특별한 일이 있어서다. 바로 희망TVSBS

희망 워크 (4Km) 가서다. 채원이랑 지면이랑 엄마들이랑

언니들이랑 간다. 지하철을 1번 갔다타왔다 비로 월드컵 공원에

4Km을 가는데 다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다. 언니들은 앞장

서서갔다. 그래도 친구들이랑 얘기 하면서 가니깐

조금 나아졌다. 기운이 다시 나서 뛰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내가 걸은 4Km^{보다} 더 가야 학교와 무거운 물

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3초에 1명씩 목숨을 잃는다고 했다. 그리고 어린 여자

아이를 돈을 주고 산다고 했다. 일을 시키려고 하나 보다.

난 그런 나라에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밤에 자장면을 먹고 많이 노았다. 오늘 일기 끝

오늘은 알찬 ~ 하루 ~ ! ! !

SBS

